

전남 건강지표 ‘경고등’…흡연·음주·비만 ‘전국 상위권’

| ■2025년 건강지표별 현황 (단위:%) | | | |
|------------------------------|-------|------|-------|
| 지표명 | 지역 | | 순위 |
| 현재 흡연율 | 해남군 | 27.4 | 전국 1위 |
| | 영암군 | 25.9 | 전국 2위 |
| 남자 현재흡연율 | 해남군 | 50.7 | 전국 1위 |
| | 영암군 | 47.2 | 전국 2위 |
| 비만율 | 장성군 | 45.2 | 전국 2위 |
|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 함평군 | 51.5 | 224위 |
| 스트레스 인지율 | 광주 남구 | 13.1 | |
| | 장흥군 | 30.5 | 전국 3위 |
|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 신안군 | 8.9 | 전국 2위 |
| | 해남군 | 8.3 | 전국 3위 |
| | 광주 북구 | 0.1 | |
| | 여수시 | 0.1 | |
| 고혈압 진단 경험률 | 신안군 | 27.8 | 전국 2위 |
| 혈당수치 인지율 | 여수시 | 14.5 | 225위 |
| | 완도군 | 14.7 | 224위 |
|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건강지표가 양호한 지역. | | | |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해남군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흡연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장흥군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민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 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161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거친 결과다.

질병청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행태부터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19개 영역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남군의 현재흡연율(일반담배)은 27.4%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영암군도 현재흡연율 25.9%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현재흡연율은 일반담배를 평생 5갑(100개비)

해남, 현재흡연율 27.4%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위

신안 음주운전 2위·장흥 스트레스 3위·장성 비만율 2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비율을 가리킨다. 올해 전국 현재흡연율은 17.9%로, 해남군은 전국 평균 대비 9.5%p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해남군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50.7%를 기록해 남자 2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도 남자 현재흡연율이 47.2%에 달했다.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신안군이 8.9%로 경북 의성군(15.8%)에 이어 전국 2위에 자리했다. 해남군은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도 8.3%로 전국 3위였다.

전남 지역 중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지표가 나쁜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흥군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0.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의 경우 비만율이 45.2%에 달했으며, 이는 강원 철원군(46.6%)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었다. 또 함평군은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이 51.5%에 불과해 경북 문경시(49.8%), 전북 진안군(50.1%)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다이어트 시도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신안군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27.8%로 강원 고성군(28.2%)에 이어 2위였다. 여수시는 자기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비율이 14.5%에 그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지도가 낮았으며, 완도군도 14.7%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을 기준으로 현재흡연율은 지난해 18.9%에서 올해 17.9%로 줄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8.7%에서 올해 9.3%로 늘었다.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은 57.1%로 전년 대비 1.2%p 줄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올해 12.0%로 1년 사이 0.6%p 떨어졌다.

전국 비만율은 35.4%로 전년에 비해 1.0%p 상승했으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로 3.5%p 늘었다. 걷기 실천율은 49.2%,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6.0%로 지난해보다 각각 0.5%p, 0.6%p씩 하락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5.9%로 지난해보다 0.3%p 줄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23.9%로 0.2%p 높아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중보건사업이 폭넓게 펼쳐지기를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노쇠 수준 관련 지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활용도를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자료는 내년 2월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의 선물주머니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양리두남홀에서 산타 모자를 쓴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부식과 생필품이 담긴 '2025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제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5명 중 1명 ‘다문화’ 전국 최고

귀화자·외국인 등 1만 3000명 완도 14.1%·진도 13.3% 기록

영암군의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074명이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이주배경인구는 15만 410명(광주 5만 864명·전남 9만 9546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배경인구는 귀화자와 이민자2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자를 뜻한다.

광주지역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인지 등의

과정을 거쳐 내국인이 된 인구는 1만 4982명, 외국인은 3만 5882명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내국인2만 8610명, 외국인 7만 936명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영암군은 총인구 6만명 중 이주배경인구가 1만 3000명(21.1%)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음성군(19.9%), 안산시(16.1%), 포천시(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완도군(14.1%)과 진도군(13.3%)이 각각 이주배경인구 비율 상위 7위와 9위를 차지하며 상위 지역에 들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남 군 단위 행정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는 적지만, 국제혼인 또는 계절 노동자 등으로 자리잡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이주배경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1사단 옮기고 AI 국방 클러스터?…광주 북구 ‘김치국’ 논란

국방부 등과 이전 논의 없어

광주시 북구가 육군31보병사단을 옮기고 해당 부지에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안을 내놔다.

북구가 자체적으로 31사단 이전 용역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31사단 이전에 대한 지자체와 국방부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 없어 이전을 전제로 한 활용 방안 용역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는 9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오치동 오치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1사단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연다.

31사단은 지난 1955년 광주시 북구 오치동과 삼

각동 일대 147만여㎡ 부지에 들어섰다. 이후 광주의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지역주민 생활환경 문제, 도시 균형발전 장애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이어져 이전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북구는 해당 부지에 지역 내 연구기관, 육군 AI 연구소 등과 연계해 국방 기술을 실증하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안을 내놔다.

유격훈련장이 있던 부지에는 특성화 학교를 유치하고, 사단사령부가 있던 공간에는 각각 국가 안보 관련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제2국방연구소와 대학 허브, 기업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31사단 주출입구가 있던 곳에는 대규모 광장과 컨벤션 센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북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연쇄·파급 효과,

민·군 겸용 AI 산업 확대, 군 실증 수요 기반 사업 직접 효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장점을 꼽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31사단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 ‘김치국 용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와 협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18년까지 31사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국방부와 31사단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의회에서 이전 협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연구용역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31사단 이전이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지 연구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아침 기온 영하권…대기 건조 ‘화재 주의’

광주·전남 지역은 10일까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고,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출겠다고 예보했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2~1도로 전날보다 7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8~12도를 보일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3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가 예상된다. 12일 아침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4~3도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8~11도에 분포하겠다.

당분간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니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